도전이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
(인문계열)
2018

2018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해설
인문사회계열

105 인문사회계열 – 문제
111 인문사회계열 – 문제해설

만듭니다

2018학년도 모의논술 문제해설
인문사회계열 –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대왕마마 병석에 침불안석 누워 천약이 만약이 뭐하리오.
옛 대신 불러들여 약류수를 구해라 하시니
옛 대신 하는 말이 "저승의 약을 어째 구해 오리오."
첫째 공주 불러들여, "부모 소양 가랴느냐?"
"산천궁녀 못 가는데 어찌 가오리."
둘째 공주 불러들여, "부모 소양 가랴느냐?"
"첫째 형님 못 가는데 어찌 가오리오."
셋째 공주 불러들여, "부모 소양 가랴느냐?"
"둘째 형님 못 가는데 어찌 가오."
넷째 공주 불러들여, "부모 소양 가랴느냐?"
"셋째 형님 못 가는데 어찌 가오."
다섯째 공주 불러들여, "부모 소양 가랴느냐?"
"넷째 형님 못 가는데 어찌 가오."
여섯 번째 공주 불러들여, "부모 소양 가랴느냐?"
"다섯째 공주님 못 가는데 어찌 가오리까."
칠공주 불러들여서, "부모 소양 가랴느냐?"
"국가에 신세는 안 졌지만은 어마마마 배 안에 열 달 들어 있던 공으로 소녀 가오리다."

(중략)

약류수를 입에 넣으시니 대왕마마와 어마마마가 일시에 일어나 앉으시며
"잠결이냐 꿈결이냐 왜 이리 소란하냐, 무슨 일로 왔느냐?"
만조백관 시녀상궁 아뢰옵는 말씀이야
"국왕의 칠공주가 무장승의 약수 삼천 리 구해 와서 동락태평하였나이다."

나

토머스 쿤은 과학의 발전이란 여태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과학의 발전이란 더 많은 진리의 끊임없는 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기가 있는 일련의 정부들로 이루어진다.

쿤은 어떤 과학에서나 하나의 지배적인 학설이 있으며, 이 학설은 서로 보완하는 주도적 개념들과 배후의 가설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가정들은 당연하고도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논증도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것들은 과학적 합의를 떠받친다. 그러한 주도 개념과 가정들의 네트워크는 하나의 이론보다는 규모가 크고, 세계관보다는 규모가 작다. 쿤은 이것을 모델을 뜻하는 그리스 단어에서 차용해 '패러다임'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지배적 패러다임을 확증하는 데에 몰두한다. 말하자면 그들은 정부를 구성하고 통상적인 과학을 운영한다.

그러나 언제나 소수의 도전적인 비추종자들이 있다. 그들은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설명될 수 없는 문제에 매력을 느낀다. 당연히 그들은 과감히 반대의 길로 나아간다. 이때 그들은 더 많은 사실, 더 많은 추종자를 모아 마침내 지배적 패러다임을 공격한다. 심지어 또 과학적 도그마로서 그들의 새로운 학설을 창설하며 과학의 '새로운 언어'를 널리 보급한다. 쿤은 이러한 시도가 감행될 때 과학 혁명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다

황만근이 없어졌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일을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어제 궐기 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궐기 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중략)

이틀 전,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열린다고 이장이 방송을 해서 저녁에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황만근은 누구보다 먼저 나타났고 이장이 시키는 대로 구판장에서 막걸리를 받아 왔다.

"그래서 우리 동네서도 군청 앞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원 참가를 해야겠다. 이 말이라. 집에 돌아가거들랑 경운기를 깨끗이 손질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민소 앞까정 끌고 와서 집합을 하라는 기 행동 지침이라. 그래가이고 군청까지 가는 국도로 깅운기로 길기 행진을 하민서 우리의 결의를 행동으로 보이 주는 기라."

"이런 거 한다고 높은 양반들한테 들리기나 하겄나. 질국 다 뺏기고 나앉는 거 아니요."

이장의 통고를 듣고 우울한 농담을 주고받은 뒤 한동안 말없이 술잔을 돌린 다음 자리는 끝났다. 다음날 새벽, 민 씨는 새벽녘에 잠깐 동네 어귀에서 탈탈거리는 경운기 소리를 들었다. 탁, 탁, 탁……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타닥, 닥, 타닥, 탁, 탁, 탈, 탈, 탈, 탈, 탈탈탈탈…… 그 뒤에도 궐기 대회 가는 집마다 경운기를 끌고 나오려면 온 동네가 시끄럽겠다고 생각했지만 웬일인지 다른 경운기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전날 밤 민 씨는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농사꾼은 빚을 지마 안 된다 카이. 기계화 영농 카더이마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몇이나 되나. 깅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거다 탈곡기, 건조기에…… 다 빚으로 산기라. 농사지 봐야 그 빚 갚느라고 정신없다."

라

오후에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찾아와 진상을 알려 주었다. 김영수는 아주 심각한 말더듬이 증세를 갖고 있고, 그 증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읽거나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아까 갑자기 말문이 막혀 책을 읽을 수도, 그렇다고 말을 더듬어서 못 읽겠다고 설명할 수도 없는 처지였을 것이고, 그 사정을 잘 아는 서훈이가 당황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대신 읽었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정말이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중략)

'미안해'라는 말은 여간 어렵지 않다. 분명히 내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안해'라는 말을 하려면 목소리가 기어들거나 가능하면 슬쩍 얼버무려 버린다. 마음속으로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가 결코 아니다. 너무나 미안하다고 생각할 때도 그렇다. 게다가 가끔씩은 그런 말을 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적도 있다.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오해는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거만하게 보이거나 못된 사람으로 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나의 성격적 결함을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미안해'라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쨌거나 그 말이 목에 딱 걸려 안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기까지 한다. 왜 '미안해요'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
그것은 나의 삶의 방식과 연결된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도 내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체득한 내 삶의 법칙은 슬프게도 '삶은 투쟁이고, 투쟁은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승부 근성이 투철한 내게 '미안해'라는 말은 결국 내가 졌다는 뜻이고,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경쟁 심리가 그 말을 거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혹은 자존심 탓일 수도 있다. '미안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나의 결함과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아니, 좀 더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가 보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어쩌면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니면, 내가 남보다 못났다는 데 대한 열등의식이거나 자격지심일 수도 있다. 만일 내가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고, 그 사실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는가.

(중략)

내일은 수업 끝나고 정식으로 사과해야지.
"얘, 영수야, 지난번엔 미안했어. 수업 중에 읽는 것 시키지 말라고 말해주지 그랬니. 모르고 그런 거니 용서해 줄 거지?"
이번 일을 계기로 나도 '미안합니다'를 좀 더 자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마

맹자에 의하면 부동심이란 내면화된 용기, 즉 외물의 존재와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주로 삼는 바를 지니고, 이를 지키는 수양이 전제될 때 확립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맹자는 인간의 실천적 행동력으로서의 용기를, 혈기의 단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혈기지용'과 진실과 정의의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 '의리지용'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맹자는 혈기지용의 구체적 사례로 북궁유와 맹시사의 용기를 들었으며, 의리지용의 구체적 사례로 증자의 용기를 들었다.

북궁유라는 용사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을 위주로 하여 용기를 이루는 요체로 삼았으며, 맹시사는 역전의 용사로서 승패에 상관없이 오직 내면의 두려움이 없는 것을 위주로 하여 용기를 이루는 요체로 삼았다. 이들과 달리 증자는 스스로 돌이켜 정직하다면 비록 천만 명이라도 나아가 대적할 수 있는 도덕적 의리를 기반으로 하여 용기를 실천했다. 맹자는 평가하기를, 외향적인 북궁유의 용기에 비해 내향적인 맹시사의 용기가 진정한 용기에 가깝지만, 이들의 용기는 모두 혈기지용에 그치므로 의리지용을 지향하는 증자의 대용(大勇)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맹자에게 진정한 용기란 스스로 반성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며, 하늘이 부여한 선한 본성을 실현하는 용기이다.

바

위험한 지식이 담긴 책들을 공개적으로 불태워 버리라고
이 정권이 명령하여, 곳곳에서
황소들이 끙끙대며 책이 실린 수레를
화형장으로 끌고 왔을 때,
가장 뛰어난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추방된 어떤 시인이 분서 목록을 들여다보다가
자기 책들이 누락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는 화가 나서 나는 듯이 책상으로 달려가,
집권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내 책을 불태워 다오!
그는 신속한 필치로 써 내려갔다.
내 책을 불태워 다오!
그렇게 해 다오!
내 책을 남겨 놓지 말아 다오!
내 책들 속에서 언제나 나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나를 거짓말쟁이처럼 취급한단 말이냐!
나는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내 책을 불태워 다오!

사

그 시골 귀족은 한가할 때마다 기사 소설에 빠져든 나머지 나중에는 사냥도, 심지어 재산 관리조차 제쳐 두었다. 기사 소설에 대한 호기심과 광기가 지나치다 못해 급기야는 광활한 논밭을 팔기에 이르렀다. 덕분에 집 안 가득 기사 소설을 빼곡히 들여놓을 수 있었다. 기사가 되어 무기를 들고 말 등에 올라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금까지 읽었던 소설 속 기사의 모험들을 직접 실천에 옮겨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길이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략)

주인 돈키호테와 종자(從者) 산초는 길을 가다가 들판에 30, 40개나 우뚝우뚝 서 있는 풍차를 발견하였다. 이것을 보자 돈키호테는 종자에게 말했다.

"산초여, 저것 좀 보아라. 서른이 훨씬 넘는 괘씸한 거인들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나는 저놈들과 싸워서 몰살을 시킨 뒤 얻은 전리품으로 거부(巨富)가 되어야겠다."

"거인이라뇨?" 하고 산초가 묻는다.

"바로 저기에 있는 게 그놈들이 아니고 뭐냐?" 하고 주인은 대답했다.

"저기 보이는 것은 거인이 아닙니다요. 풍차란 말입니다요. 팔이라고 하시는 것은 날개인데, 바람의 힘으로 돌아서 맷돌을 움직입죠."

"옳지 알겠다." 하고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너는 정말 이런 모험은 도통 모르는 모양이구나. 저것은 틀림없는 거인들이야. 만약 겁이 나거든 여기 멀리 떨어져서 내가 저놈들을 상대로 하는 치열하고 일찍이 보지 못한 싸움을 기도나 드리면서 구경하고 있거라."

이렇게 말한 돈키호테는 산초가 아무리 풍차라고 설명을 하여도 들은 척도 않고 로시난테에 박차를 가했다. 아무튼 그는 놈들이 거인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으므로 종자 산초의 말도 귀담아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까이 가서도 상대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볼 생각도 않고 오히려 소리 높이 외쳤다.

"도망치지 말아라, 이 비겁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과 대적할 사람은 오직 일기의 기사뿐이로다."

그가 일격을 가하자, 세찬 바람을 받아 무서운 힘으로 돌아가는 날개를 찌른 창은 박살이 나고 동시에 사람과 말도 휩쓸려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들판을 데굴데굴 굴러갔다. 산초가 당나귀를 급히 몰아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주인은 이미 꼼짝달싹도 못하는 형편이었다. 사실 그가 로시난테와 함께 받은 타격은 엄청난 것이었다.

"맙소사!" 하고 산초는 말했다.

"글쎄, 똑똑히 살피시고 일을 저지르시라고 제가 그토록 말했는데도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아

기업가가 기업을 설립하여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많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많은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을 설립해야 하고, 생산 요소를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제품이 많이 판매되어 이윤을 낼 수 있을 것인지, 반대로 판매되지 않아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업이 이윤을 얻는 것은 기업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도전한 결과이며, 그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다. 슘페터는 기업가가 현재의 공급과 미래의 수요 간 시차 때문에 생겨나는 불확실성을 부담하면서 과감히 생산을 수행하는 자세를 '기업가 정신'이라고 보고, 이러한 정신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기업가들이 새로운 경영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창조의 과정을 '창조적 파괴'라고 부르면서, 창조적 파괴가 경제 발전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자

1981년 IBM의 최고 경영자였던 프랭크 캐리는 그해 8월까지 IBM 상표를 부착한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그 사업을 담당한 IBM의 경영진들은 제작 과정에서 두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이러한 실수는 독단적인 결정에서 비롯되었는데, 그것은 개인용 컴퓨터의 핵심 요소인 마이크로 칩과 운영 체제를 회사 밖에서 조달하려 했다는 점이다. 결국 IBM은 인텔로부터 마이크로 칩을, 시애틀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운영 체제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비핵심 분야를 외부의 기업에 맡김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신들은 돈이 되는 컴퓨터 본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IBM 쇠퇴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는 용기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이 나타난다. 각각의 상황에서 발휘되는 '용기'와 이를 통해 구현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용기에 대한 맹자의 주장을 활용하여 제시문 (라)에 나타난 '나'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바)의 '시인'이 보여 준 용기는 맹자가 말하는 용기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사)에 나타나는 돈키호테 식의 리더십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문 (아)의 논지를 토대로 설명하고, 돈키호테와 제시문 (자)의 IBM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서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찾아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